

#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육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손현검 · 유계숙

##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손현겸\*\* · 유계숙\*\*\*

### 초 록

본 연구는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 4년제 남녀공학 1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전반적인 미래지향은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두 영역에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는 대체로 양성평등적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대생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은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모두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과 하위 변인 중 좌절된 소속감의 경우는 여대생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영역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높아졌다. 다음으로 인식된 짐스러움의 경우는 가족의 월평균 소득액이 적을수록, 직업과 진로영역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과 가족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높아졌다. 셋째,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간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여대생은 결혼과 가족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과 하위 변인 중 좌절된 소속감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련성들은 여대생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20대 청년층 여성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완화를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좌절된 소속감, 인식된 짐스러움**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2016.8)의 일부임.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가족학전공 박사(satirfamily@daum.net)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dongrazi@khu.ac.kr)

## I. 서론

최근 남성을 능가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일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약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모든 여성들에게 사회 진출에 대한 동일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15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145개 대상국 중 115위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기회·정치권한·남녀 임금격차도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World Economic Forum, 2015). 이성재(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 42개월 후, 남녀 고용률의 격차가 3.6%에서 9.3%로 벌어졌으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의 63.7% 수준이며,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2,139만 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더욱이 ‘헬조선’이라 불릴 정도로 열악해진 한국의 사회·문화·경제 상황에서 청년층 여성은 ‘사회적 혜택의 최대 수혜자 집단’으로 지목되었고, 최근 ‘된장녀’, ‘김치녀’ 등의 신조어들로 표현되는 청년층 여성에 대한 적개심의 표출은 사회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 열악한 사회 구조에서 예비사회인인 20대 청년층 여대생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심리적 위험 요인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보고는 주목할 만하다(천대운, 2013). 또한 무망감, 우울, 고립감, 알코올 중독, 그리고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등의 심리적 요인이 여성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Baca-Garcia et al., 2008; Murphy, 1998; Stephenson, Pena-Shaff, & Quirk, 2006).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자살생각(66.6%) 및 자살시도(62.7%)는 남성의 자살생각(33.4%)이나 자살시도(37.3%)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자살예방협회,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대 청년층 여대생의 심리적 위험 요인을 고찰하기 위하여 최근 자살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Joiner(2005)의 대인관계 이론(Interpersonal-Psychology Theory)으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설명하고자 한다. Joiner(2005)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소속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좌절된 소속감' (thwarted belongingness)과 사회적 능력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경험하는 '인식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은 자살욕구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밀한 대인관계(Straiton, Roen, & Hjelmeland, 2012)와 상호작용을 통한 감정공유 및 정서적 지지(Murphy, 1998)의 관계를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남성보다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미래지향(future orientation)'과 '성역할 태도'가 고려될 수 있다. 미래지향은 발달단계상 청년기에 해당하는 여대생에게 가치관 정립, 진로와 직업 선택, 결혼과 미래 가족생활에 대한 가능성의 탐색으로 이어진다(Arnett, 2000). 또한 성역할 태도는 현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자아정체성 확립 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현주, 2009). 이러한 두 변인의 특성은 20대 청년층 여대생의 심리와 발달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변인의 중요성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다. McCabe와 Barnett(2000)의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 태도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이후의 삶에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개연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김경미·양혜영(2005), 성미혜(2009), 안윤정(2014)은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들일수록 주체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의 대처 및 해결에 적극적임을 보고하였다. 반면 문선희(2012), 한인영·홍선희(2011), Bromberger & Matthews(1996)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들일수록 불안, 우울증,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섭식문제 취약성, 결혼 기피와 지연과 같이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한바 여대생이 어떠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성역할 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혼 여성의 진로와 결혼, 기혼 여성의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분야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었다(백경숙·김효숙, 2013; 최은영·곽현주, 2015). 또한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실증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20대 청년층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육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성역할 태도가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육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20대 청년층 여대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와 함께 부정적 심리요인인 자살 관련 대인육구 좌절 완화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 및 자살 관련 대인육구 좌절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는 자살 관련 대인육구 좌절(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육구 좌절(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미래지향

미래지향은 희망과 두려움의 측면에서 미래의 인지표상 구조와 관련이 있다. 미래지향이란 직업·가족·사회생활 영역(Robbins & Bryan, 2004)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열망·주관적 의미부여(McCabe & Barnett, 2000)에 따라서 미래 인지표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개인이 형상화한 미래지향은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지위를 원하는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Seginer, 199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미래지향’이란 자신의 진로와 직업, 결혼과 가족의 인생 영역에 대한 욕구와 열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미래의 인지표상으로 정의한다.

발달단계상 청년기에 속하는 여대생에게 미래지향은 발달과업의 수행에서 안내 역할을 한다.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함께 할 배우자는 어떤 유형인지를 고민하고, 교육에 대한 선택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다(Arnett, 2000). 여대생이 생애발달영역인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를 지향할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구체적인 계획·희망을 갖는 것이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견디도록 도우며, 균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Jobes, 2006). 반면 여대생이 자신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 즉 긍정적인 미래지향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무망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영선, 2009).

결국 여대생이 긍정적 미래를 지향하지 않을수록,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나 부적절한 태도 등이 부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신이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타인에게 짐만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대인관계 속에서 고립된 개인은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자살욕구’를 경험할 수 있다(Joiner, 2010). Nademin et al.(2005)의 연구에서 자살성향이 있는 대학생 집단과 그렇지 않은 정상 대학생 집단을 비교한 결과, 정상 집단이 자살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목표·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Connor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자살의 자해 전력이 있는 1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미래 기대(예, 긍정적인 미래 생각)가 부족하고 무망감을 갖는 것은 자살 경향성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우선 긍정적인 미래지향을 가진 여대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경험이 미미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중요 인생영역에서 경직된 사고로 부정적인 미래지향을 강하게 형성한 여대생은 대인욕구의 좌절을 경험하고, 이것이 극단적으로는 자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은 20대 청년층 여성의 삶에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성역할 태도

성역할은 특정 사회 내에서 관습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되는 적합한 역할을 의미한다. 또한 성역할 태도는 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른 역할의 기대나 고정관념에 대해 개인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가리킨다(Lott & Maluso, 1993). 이러한 성역할 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로서, 성역할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양극화하여 이해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둘째는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로서, 성역할의 내용을 융통성 있게 이해하고, 여성의 권리에 반하는 성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남녀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이영옥, 2010).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를 성별에 따른 역할에 대한 개인의 선호 경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생물학적 성에 근거하여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전통적 성역할 태도’로, 성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고 남녀의 성역할이 융통성 있게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로 정의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성이 두 가지 성역할 태도 중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그 여성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들은 남녀의 특성과 역할을 단순화된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직된 판단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이영옥, 2010). 반면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별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며(성미혜, 2009), 자신의 일을 갖고자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세우면서 성취를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특성을 갖는다(안윤정, 2014). 이처럼 성역할 태도는 개인이 미래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현실과 연계되고, 이러한 현실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능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가 잔존해 있고,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정치적 불평등을 겪는 여성에게 사랑·정서적 민감성을 갖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성역할 태도가 이성·주장성·독립성의 발달을 저해하고 의존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한계로 작용한다(임정빈·정혜정,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여대생이 양성평등적 성역할에 대해 이상적이거나 피상적인 수준으로만 인식한다면 그것이 외부에서 요구하는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취하면서 가치관의 혼란과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유보람, 2016). 이상과 같이 발달단계상 청년기에 속하는 여대생에게 성역할 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 태도가 갖는 중요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 3.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인간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충족하고자 한다. 그러나 욕구가 지속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성장하거나 심각하게 좌절된 개인은 인지 왜곡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Ryan, 1993). 또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욕구의 좌절은 보다 강렬한 자살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한만봉, 2011). 자살욕구를 높이는 심리적 원인을 연구한 Joiner(2005)는 대인관계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소속감이 좌절되고, 자신을 짐스럽다고 인식하는 경험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oiner(2005)의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관련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이란 대인관계에서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되고 자신을 타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여 자살욕구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은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첫 번째 요인인 ‘좌절된 소속감’이란 타인과 단절된 강렬한 외로움의 느낌을 의미한다(Van Orden et al., 2008).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소속감이 좌절된다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결핍된 결과(Stellrecht et al., 2006)이자 사회적 통합의 실패(Durkheim, 1951)로서, 사회적 지지집단과 관련된 왜곡된 욕구를 가지는 상태를 뜻한다.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은 특히 여성에게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Lamis & Lester, 2012). 여성의 자살에 대해 연구한 Murphy(1998)에 의하면 여성의 자살에서 ‘고립감’은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Murphy(1998)는 여성에게 정서적 지지로부터 결핍·친구들로부터 단절·배우자 관계에서의 거리감·감정을 상의하고 돌보는 대상의 부재 등이 자살 위험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남성의 자살 사망은 경제적 어려움·여성보다 폭력적인 경향·물질남용(substance abuse) 등이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Stratton, Roen, & Hjelmelan, 2012). 이처럼 소속감은 남성보다 여성의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두 번째 요인인 ‘인식된 짐스러움’이란 자기 스스로를 쓸모없고 무능력하다고 지각하여 자신이 죽는 것이 가족·친구·사회에 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거나 가족에서 자신이 없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위험하고 왜곡된 신념을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Van Orden et al., 2008). 즉 자신의 무능력함에 관한 왜곡된 신념은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함으로써 결국 현 상태가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각하게 한다. 따라서 개인 내면에서 만성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부정적 자기 귀인은 자살생각을 합리화하고, 결과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다(Wallack, 2007). 이처럼 인식된 짐스러움은 자살의 강력한 예측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Zhang et al.(2013)는 17세~24세 중국대학생을 대상으로 Joiner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모든 변인이 현재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좌절된 소속감, 인식된 짐스러움, 자해에 요구된 능력이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만이 현재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계숙·손현경(2015) 역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대처방식, 가족유대감, 긍정적 자기평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친구의 지지라는 자살 보호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바, 누구나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타인에게 짐만 된다는 인식이 장기간 지속될 때 삶에 대한 애착을 잃어버리게 된다. 즉 살아가려는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에든 기여하고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Joiner, 2010). 이처럼 대인관계로부터 경험한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살로 이르게 하는 강력한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국내 여대생에게 적용하고자 한다.

#### 4.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 및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간의 관련성

현재까지 여대생을 대상으로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 및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선행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O'Connor, Smyth와 Williams(2015)의 연구에서는 병원 내 388명의 자살시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낮은 수준의 성취뿐만 아니라 경제적·개인 내적(개별적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측면에서 미래에 관한 긍정적 생각의 수준이 낮을 경우 반복적 자살시도가 예측된다고 하였다. 또한 McCabe와 Barnett(2000)의 연구 결과에서는 도시의 저소득층, 비행 청소년들의 낭만적 관계와 결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을 분석한 결과, 미래지향적 태도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

들은 미래의 가족과 낭만적 관계보다 미래 진로에 대해 좀 더 낙관적이었다. 이는 가족과 낭만적 관계보다 미래의 진로 계획이 좀 더 현실적이며, 미래의 직업적인 성과에 대한 주도권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로 무망감은 광범위한 원인들로 인해 미래에 대해 극심한 비관주의와 절망감을 갖는 것이다. 이는 자살생각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으로 자발적 반응과 자율성을 지연시키며, 자살생각, 낮은 에너지, 무관심, 정신운동 지체, 수면방해, 집중력 저하, 그리고 악화된 기분의 부정적인 인식을 이끈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한편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실제로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Bromberger와 Matthews(1996)의 연구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높은 경향성, 심사숙고하며 화를 참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의 특성들이 여성의 우울증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게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경직된 사고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긍정적 미래지향과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는 자살예방을 위한 중요한 보호요인이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여대생이 어떠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는지에 따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합리적인 판단이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 극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직된 사고로 심각한 욕구 좌절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역할 관점에서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5~7월에 걸쳐 서울시 소재 4년제 남녀공학 대학교 12개교에 재학 중인 미혼 청년층 여대생 350명을 편의 표집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여대생의 응답자료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된 자료 8부(2.3%)를 제외하고 총 342부(97.7%)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학년 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학년은 1학년 100명(29.2%), 2학년 90명(26.3%), 3학년 84명(24.6%), 4학년 68명(19.9%)이었다. 전공별로는 인문계 전공자가 53.2%로 가장 많았다. 평균 연령은 만 20.48세였으며, 본인 포함 형제 수는 평균 1.13명,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522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제 파트너 유무에 대해서는 ‘있음’이 36.5%, ‘없음’이 63.5%였으며, 종교의 유무에 대해서는 ‘있음’이 40.6%, ‘없음’이 59.4%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미래지향을 측정하기 위해 유지선·유계숙(2007)이 개발한 청소년 미래지향의 학업영역 10문항, 직업과 진로영역 10문항, 결혼과 가족영역 10문항으로 총 30문항의 척도 중, 청년기인 여대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직업과 진로영역 및 결혼과 가족영역 각 10문항씩 20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총점 범위는 2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분석한 결과 .9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은 .81,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은 .9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기연(2000)이 구성한 9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총점 범위는 9~45점이다. 성역할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대생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측정하기 위해 Van

Orden et al.(2012)의 INQ(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좌절된 소속감 9문항과 인식된 짐스러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5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한 응답 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며, 총점 범위는 15~10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대인관계에서 소속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짐스럽게 인식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척도의 신뢰도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인식된 짐스러움 .91, 좌절된 소속감 .88로 나타났다. 또한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척도들에서 각 문항의 적재값이 .30보다 크며, 하나의 요인으로 각 척도를 구성함으로써 척도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그밖에 여대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 응답자에게 자신의 만 연령, 종교 유무, 교제 파트너 유무, 본인 포함 형제 수, 가족의 월평균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택일하거나 직접 기입하도록 질문하였다. 이는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연령이나 종교, 형제 수, 가족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배우자 유무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검증된 선행연구(강초록·조영태, 2012; 김영택 외, 2009; 노법래, 2013; Colucci & Martin, 2008)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 및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범위를 산출하였다. 둘째, 여대생의 만 연령, 종교 유무, 교제 파트너 유무, 본인 포함 형제 수, 가족의 월평균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를 독립변수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하위 요인인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전반적 경향

본 연구의 주요변인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여대생의 전반적인 미래지향은 직업과 진로( $M=3.88$ ,  $SD=.54$ ), 결혼과 가족( $M=3.82$ ,  $SD=.72$ ) 두 영역 모두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 $M=3.96$ ,  $SD=.60$ ) 역시 대체로 양성평등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여대생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은 인식된 짐스러움( $M=1.76$ ,  $SD=.93$ ), 좌절된 소속감( $M=2.72$ ,  $SD=.96$ )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1>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 및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전반적 경향  
( $N=342$ )

변 인		문항		총점	
		$M(SD)$	범위	$M(SD)$	범위
미래지향	직업과 진로영역	3.88(.54)	1.40~5.00	38.72(5.38)	14.00~50.00
	결혼과 가족영역	3.82(.72)	1.40~5.00	38.22(7.19)	14.00~50.00
	전체	3.85(.54)	2.05~5.00	76.94(10.69)	41.00~100.00
성역할 태도	전체	3.96(.60)	2.44~5.00	35.48(5.43)	22.00~45.00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좌절된 소속감	2.72(.96)	1.00~6.33	24.51(8.64)	9.00~57.00
	인식된 짐스러움	1.76(.93)	1.00~7.00	10.53(5.57)	6.00~42.00
	전체	2.34(.84)	1.00~5.67	35.04(12.68)	15.00~85.00

2.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만 연령, 종교 유무, 교제 파트너 유무, 본인 포함 형제 수, 가족의 월평균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지수)를 검토한 결과 1.04~1.40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종속변인인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변량의 9.0%를 설명하였으며( $F=4.77$ ,  $p<.001$ ), 모형 2에서는 이들 변인을 통제하고, 독립변인인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의 총점을 투입한 결과,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변량의 28.0%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F=20.51$ ,  $p<.001$ ).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의 연령이 많을수록( $\beta = .13$ ,  $p<.05$ ),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beta = -.17$ ,  $p<.01$ ),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이상의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자신의 직업과 진로( $\beta = -.28$ ,  $p<.001$ ), 결혼과 가족( $\beta = -.21$ ,  $p<.01$ )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beta = -.16$ ,  $p<.01$ )를 가질수록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미치는 영향  
( $N=342$ )

독립 변수 \ 종속 변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모형 1		모형 2	
	<i>B</i> ( <i>S.E</i> )	$\beta$	<i>B</i> ( <i>S.E</i> )	$\beta$
상수	14.11(10.79)		78.25(13.07)	
만 연령	1.14(.45)	.16*	.93(.41)	.13*
종교 유무 <sup>a</sup>	-.17(1.69)	-.01	-1.46(1.54)	-.05
본인 포함 형제 수	-2.20(1.34)	-.10	-1.18(1.22)	-.06
가족의 월평균 소득	-.01(.00)	-.20**	-.01(.00)	-.17**
교제 파트너 유무 <sup>b</sup>	2.42(1.74)	.09	.21(1.62)	.01
직업과 진로영역의 미래지향 수준			-.69(.16)	-.28***
결혼과 가족영역의 미래지향 수준			-.39(.12)	-.21**
성역할 태도			-.39(.15)	-.16**
$R^2$	.09		.28	
<i>F</i> for change in $R^2$	4.77***		20.51***	

Note: <sup>a</sup>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sup>b</sup>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  $p<.05$ , \*\*  $p<.01$ , \*\*\*  $p<.001$ , *VIF* = 1.04-1.40

### 1)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좌절된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하위요인 중 좌절된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역시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VIF$ 는 1.04~1.40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종속변인인 좌절된 소속감 변량의 9.0%를 설명하였으며( $F=4.76$ ,  $p<.001$ ), 모형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하고, 독립변인인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의 총점을 투입한 결과, 좌절된 소속감의 28.0%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나타냈다( $F=20.15$ ,  $p<.001$ ).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의 연령이 많을수록( $\beta = .15$ ,  $p<.05$ ),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beta = -.15$ ,  $p<.01$ ) 좌절된 소속감 수준은 높았다. 또한 이상의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직업과 진로( $\beta = -.28$ ,  $p<.001$ ), 결혼과 가족( $\beta = -.22$ ,  $p<.01$ )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그리고 전통적 성역할 태도( $\beta = -.13$ ,  $p<.05$ )를 가질수록 좌절된 소속감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좌절된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 $N=342$ )

독립 변수 \ 종속 변수	좌절된 소속감			
	모형 1		모형 2	
	$B(S.E)$	$\beta$	$B(S.E)$	$\beta$
상수	8.89(7.39)		52.00(8.97)	
만 연령	.85(.31)	.18**	.70(.28)	.15*
종교 유무 <sup>a</sup>	-.34(1.16)	-.02	-1.29(1.06)	-.07
본인 포함 형제 수	-1.48(.92)	-.10	-.83(.84)	-.06
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0)	-.19**	-.00(.00)	-.15**
교제 파트너 유무 <sup>b</sup>	1.78(1.19)	-.10	.24(1.11)	.01
직업과 진로영역의 미래지향 수준			-.47(.11)	-.28***
결혼과 가족영역의 미래지향 수준			-.28(.08)	-.22**
성역할 태도			-.22(.10)	-.13*
$R^2$	.09		.28	
$F$ for change in $R^2$	4.76***		20.15***	

Note: <sup>a</sup>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sup>b</sup>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  $p<.05$ , \*\*  $p<.01$ , \*\*\*  $p<.001$ ,  $VIF = 1.04-1.40$



## 2)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인식된 짐스러움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하위요인 중 인식된 짐스러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VIF*의 범위는 1.04~1.40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종속변인인 인식된 짐스러움 변량의 6.0%를 설명하였으며( $F=2.89$ ,  $p<.05$ ), 모형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하고, 독립변인인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의 총점을 투입한 결과, 인식된 짐스러움 변량의 18.0%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나타냈다( $F=11.44$ ,  $p<.001$ ).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beta = -.15$ ,  $p<.05$ ) 인식된 짐스러움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이상의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직업과 진로( $\beta = -.21$ ,  $p<.01$ ), 결혼과 가족( $\beta = -.15$ ,  $p<.05$ )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beta = -.17$ ,  $p<.05$ )를 가질수록 인식된 짐스러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여대생의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가 인식된 짐스러움에 미치는 영향  
( $N=342$ )

독립 변수 \ 종속 변수	인식된 짐스러움			
	모형 1		모형 2	
	<i>B</i> ( <i>S.E.</i> )	$\beta$	<i>B</i> ( <i>S.E.</i> )	$\beta$
상수	5.23(4.46)		26.25(5.67)	
만 연령	.30(.18)	.10	.22(.18)	.08
종교 유무 <sup>a</sup>	.17(.70)	.02	-.17(.67)	-.02
본인 포함 형제 수	-.72(.56)	-.08	-.35(.53)	-.04
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0)	-.18**	-.00(.00)	-.15*
교제 파트너 유무 <sup>b</sup>	.64(.72)	.06	-.03(.70)	-.00
직업과 진로영역의 미래지향 수준			-.22(.07)	-.21**
결혼과 가족영역의 미래지향 수준			-.11(.05)	-.15*
성역할 태도			-.16(.06)	-.17*
$R^2$	.06		.18	
<i>F</i> for change in $R^2$	2.89*		11.44***	

Note: <sup>a</sup>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sup>b</sup>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  $p<.05$ , \*\*  $p<.01$ , \*\*\*  $p<.001$ , *VIF* = 1.04-1.40

### 3.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들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한 뒤,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VIF*를 검토한 결과 1.07~1.50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모형 2에서 독립변인인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및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변인을 투입한 결과,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 순으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모형 3에서는 이상의 투입 변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호작용 변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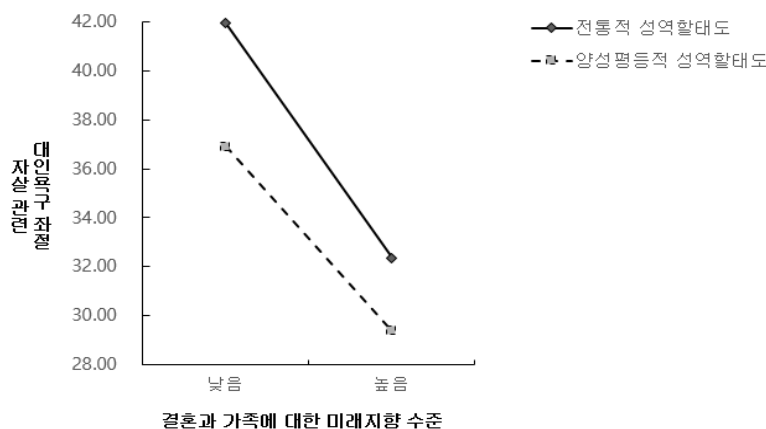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7%( $F=3.26$ ,  $p<.01$ ), 2단계에서 27%( $F=18.71$ ,  $p<.001$ ), 3단계에서 31%( $F=6.31$ ,  $p<.01$ )로 유의미한 설명력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대생의 연령이 많을수록( $\beta = .14$ ,  $p<.05$ ),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beta = -.15$ ,  $p<.05$ )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이 높아졌으며,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 $\beta = -.28$ ,  $p<.001$ ),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beta = -.22$ ,  $p<.01$ ), 성역할 태도( $\beta = -.17$ ,  $p<.01$ ) 순으로 대인욕구 좌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조절 두 변인 간 상호작용 변인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beta = -.22$ ,  $p<.01$ )에서만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요컨대 여대생은 결혼과 가족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여대생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표 5〉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육구 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N=342)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자살 관련 대인육구 좌절					
		모형 1		모형 2		모형 3	
		B(S.E)	$\beta$	B(S.E)	$\beta$	B(S.E)	$\beta$
상수		14.60(11.21)		18.16(10.41)		22.05(10.22)	
만 연령		1.12(.46)	.16*	1.05(.42)	.15*	.99(.41)	.14*
종교 유무 <sup>a</sup>		.01(1.73)	.00	-1.13(1.58)	-.04	-1.48(1.55)	-.06
본인 포함 형제 수		-.65(1.68)	-.03	.87(1.54)	.04	.55(1.50)	.02
가족의 월평균 소득		-.01(.00)	-.21**	-.01(.00)	-.16*	-.01(.00)	-.15*
교제 파트너 유무 <sup>b</sup>		.76(1.78)	.03	-.90(1.66)	-.04	-1.83(1.64)	-.07
직업과 진로영역의 미래지향 수준(A)				-.75(.17)	-.31***	-.69(.17)	-.28***
결혼과 가족영역의 미래지향 수준(B)				-.33(.13)	-.19**	-.39(.13)	-.22**
성역할 태도(C)				-.39(.15)	-.16*	-.42(.15)	-.17**
A × C						-.01(.03)	-.02
B × C						.07(.02)	.22**
R <sup>2</sup>		.07		.27		.31	
F for change in R <sup>2</sup>		3.26**		18.71***		6.31**	

Note: <sup>a</sup>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sup>b</sup>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  $p < .05$ , \*\*  $p < .01$ , \*\*\*  $p < .001$ , VIF = 1.07-1.50



[그림 1] 여대생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육구 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 1)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좌절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좌절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들을 평균중심화를 한 후,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VIF*를 검토한 결과 1.07~1.50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모형 2에서 독립변인인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및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변인을 투입한 결과,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 순으로 좌절된 소속감에 부적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모형 3에서는 이상의 투입 변인 이외의 추가적으로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호작용 변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과 성역할 태도 간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대생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 $\beta = -.27$ ,  $p < .001$ ),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beta = -.24$ ,  $p < .01$ ), 성역할 태도( $\beta = -.14$ ,  $p < .05$ )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조절 두 변인 간 상호작용 변인은 결혼과 가족에서의 미래지향( $\beta = .25$ ,  $p < .001$ )에서만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요컨대 결혼과 가족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좌절된 소속감 수준은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여대생이 가진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는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보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되어 심리내적 문제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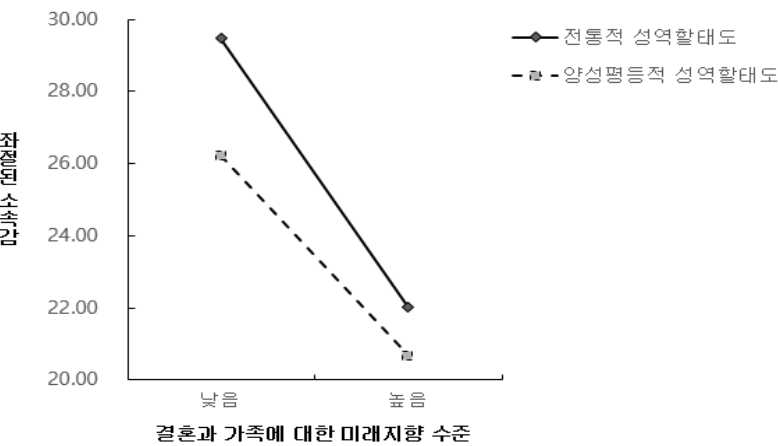
〈표 6〉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좌절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N=342)

독립 변수 \ 종속 변수	좌절된 소속감					
	모형 1		모형 2		모형 3	
	B(S.E)	$\beta$	B(S.E)	$\beta$	B(S.E)	$\beta$
상수	10.01(7.83)		13.22(7.32)		16.28(7.15)	
만 연령	.84(.32)	.17*	.77(.30)	.16*	.73(.29)	.15*
종교 유무 <sup>a</sup>	-.41(1.21)	-.02	-1.31(1.11)	-.07	-1.56(1.08)	-.09
본인 포함 형제 수	-1.01(1.17)	-.06	-.06(1.08)	-.00	-.33(1.05)	-.02
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0)	-.19**	-.00(.00)	-.14*	-.00(.00)	-.13*
교제 파트너 유무 <sup>b</sup>	.85(1.24)	.05	-.39(1.16)	-.02	-1.12(1.15)	-.06
직업과 진로영역의 미래지향 수준(A)			-.51(.12)	-.30***	-.45(.12)	-.27***
결혼과 가족영역의 미래지향 수준(B)			-.26(.09)	-.21**	-.30(.09)	-.24**
성역할 태도(C)			-.21(.11)	-.13*	-.23(.11)	-.14*
A × C					-.02(.02)	-.05
B × C					.06(.02)	.25***
R <sup>2</sup>	.07		.26		.31	
F for change in R <sup>2</sup>	3.38**		17.74***		7.46**	

Note: <sup>a</sup>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sup>b</sup>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  $p < .05$ , \*\*  $p < .01$ , \*\*\*  $p < .001$ , VIF = 1.07-1.50



[그림 2] 여대생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이 좌절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 2)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인식된 짐스러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하위요인인 인식된 짐스러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들을 평균중심화를 한 후,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VIF*를 검토한 결과 1.07~1.50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모형 2에서 독립변인인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및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변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5%, 2단계에서 18% ( $F=10.93$ ,  $p<.001$ )로 유의한 설명력의 변화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여대생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

<표 7> 여대생의 미래지향이 인식된 짐스러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 $N=342$ )

독립 변수 \ 종속 변수	인식된 짐스러움					
	모형 1		모형 2		모형 3	
	<i>B</i> ( <i>S.E.</i> )	$\beta$	<i>B</i> ( <i>S.E.</i> )	$\beta$	<i>B</i> ( <i>S.E.</i> )	$\beta$
상수	4.59(4.55)		4.95(4.42)		5.77(4.43)	
만 연령	.29(.19)	.10	.28(.18)	.10	.26(.18)	.10
종교 유무 <sup>a</sup>	.42(.70)	.04	.19(.67)	.02	.08(.67)	.01
본인 포함 형제 수	.36(.68)	.03	.93(.65)	.09	.88(.65)	.09
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0)	-.19**	-.00(.00)	-.15*	-.00(.00)	-.14*
교제 파트너 유무 <sup>b</sup>	-.09(.72)	-.01	-.51(.70)	-.05	-.71(.71)	-.07
직업과 진로영역의 미래지향 수준(A)			-.24(.07)	-.25**	-.24(.07)	-.24**
결혼과 가족영역의 미래지향 수준(B)			-.08(.05)	-.11	-.08(.06)	-.12
성역할 태도(C)			-.18(.07)	-.19**	-.19(.07)	-.19**
A × C					.01(.01)	.03
B × C					.02(.01)	.12
$R^2$	.05		.18		.19	
$F$ for change in $R^2$	2.05		10.93***		2.19	

Note: <sup>a</sup>종교: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sup>b</sup>현재 이성교제 유무: 0=파트너 무, 1=파트너 유.

\*  $p<.05$ , \*\*  $p<.01$ , \*\*\*  $p<.001$ ,  $VIF=1.07-1.50$

지향, 결혼과 가족에 대한 미래지향, 성역할 태도 간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19%로 설명력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beta = -.14, p < .05$ ), 직업과 진로에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beta = -.24, p < .01$ ), 그리고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beta = -.19, p < .01$ ), 인식된 짐스러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은 여대생이 전통적 또는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미혼 청년층 여대생 34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미래지향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전반적인 미래지향은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두 영역 모두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 역시 대체로 양성평등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여대생의 전반적인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은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모두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 여대생들이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형성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지향하고 있으며, 높은 교육적 성취로 인해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한다(이명희, 2012).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하위요인인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측정한 연구(Van Orden et al., 2006; Van Orden et al., 2008)에서 두 변인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대상인 여대생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성차별에 대한 경험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추론되며 이에 따라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및 하위 변인인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대생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영역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및 하위요인 중 좌절된 소속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식된 짐스러움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월평균 소득액이 적을수록, 직업과 진로영역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과 가족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인식된 짐스러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 여대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여성의 연령증가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여성의 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노법래(2013)의 결과와 연결된다. 이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여대생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졸업 후 직업을 갖고 결혼을 지향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가족의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가족·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선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대생이 긍정적 미래지향과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성역할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지닌 사회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때, 부정적으로 미래를 지향하고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및 좌절된 소속감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성역할 태도가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나, 인식된 짐스러움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성역할 태도가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은 결혼과 가족 영역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 및 좌절된 소속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는 자살 관련 대인욕



구 좌절 및 좌절된 소속감 수준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태도에 따라 여대생의 능력과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 및 개인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고, 융통적인 사고로 어디서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김경미·양혜영, 2005). 이로 인해 여대생은 미래의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하여 남성의 도구적 역할과 여성의 관계 지향적 역할에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지향하며, 문제 상황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은 자신보다는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며, 타인에 의존적이며 기대와 포부가 낮은 편이다. 또한 가사와 양육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다(안윤정, 2014). 결국 억압되고 희생적인 성역할을 수용한 여대생이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하여 성인으로 어떤 역할과 지위를 원하고 수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자신만의 견해를 갖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미래를 지향할 때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이로 인해 소속감의 욕구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식된 짐스러움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의미 있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대생이 직업과 진로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인식된 짐스러움 수준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때 여대생이 가진 성역할 태도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직업과 진로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남성에게 의존적·수동적 태도에 대한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경직되어 있을수록 여대생은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의식 수준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고자 하는 기대는 커지지만 그만큼 결혼배우자의 선택은 힘들어진다. 신경아(2014)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이제 혼자서만 생계부양의 책임을 떠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통계청(2016)의 직업별 혼인 건수에 대한 인구동향 조사결과, 무직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10년 45.0%에서 2015년 33.9%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만혼화·비혼화·출산기피와 같은 사회문제와 직결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상황은 여대생의 긍정적 미래지향을 어렵게 만들며 스스로를 사회에서 쓸모없고 무능력하며 타인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된 짐스러움을 느끼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대생이 생존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심각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이거나 양성평등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는 인식이 가중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거나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관련변인을 포함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대생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학력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여성 경력개발지원사업”(여성가족부, 2016a) 및 아울러 2003년부터 5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6년 13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원하고, “2016년 청년여성경력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여대생들에게 성차별적 취업현실, 경력단절 예방, 취업 장애요인의 효과적 대처능력을 키우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 설계와 직업역량 고취를 목적으로 젠더의식강화 훈련, 개인별 커리어 개발, 직무능력훈련의 필수 프로그램과, 여고생 멘토링, 지역여성커리어개발, 기타 자율 선택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b). 그러나 문승규·최기성·임세영(2014)에 따르면, 대학 내 취업지원기구와 프로그램이 소규모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10여 년간 실행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적극적인 기업 연계를 통해 여대생에게 특화된 새로운 직군 개발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후 심리적·성차별·대인관계 갈등 발생 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성차별적인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 임원 및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대생은 긍정적 미래를 지향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인식된 짐스러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는 여대생이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8)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성가족부(2016c)에서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하여 ‘성인지정책교육’, ‘여성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양성평등의식 향상 및 조직 내 여성 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여성 공무원·교원·기업 임원으로 한정되어 정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이자 향후 경제 주체인 청년층 여대생들을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현장’에서는 20대 청년층 여대생들의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을 감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티어 자아성장 집단프로그램,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상담 자조집단 등을 제공함으로써 여대생의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12곳 대학교에 재학 중인 350명의 여대생만 편의 표집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조사 대상에 전국 규모의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거나, 일반 대학생과 자살위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대인욕구 좌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성역할 관점에서 미래지향과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자살욕구·자살시도 등에 대한 변인을 추가하여 다른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 내 전통적인 성별분업과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관행들로 인하여 여대생이 가진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분화, 부모자녀 친밀도의 수준에 따라 자살 관련 대인욕구 좌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조절변수를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살육구를 개인 내적 차원으로 국한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설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사회는 표면적으로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요구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자살육구와 관련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국가 핵심 인력인 20대 청년층 여대생이 사회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분리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시점에서 청년여성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진로와 직업, 결혼과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참고문헌

-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인자·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강초록·조영태(2012). “사회적 차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5권 제3호. 1-27.
- 김경미·양혜영(2005). “성역할 개념의 발달과 분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8권 제3호. 1-20.
- 김영선(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우울, 무망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1권 제4호. 1907-1921.
- 김영택·김인순·주영수·이지연(2009).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노법래(2013). “자아의 위기와 한국 자살발생의 인구학적 구조 변동”. 보건 사회연구. 제33권 제4호. 218-244.
- 문선희(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제3호. 5-25.
- 문승규·최기성·임세영(2014). “대학취업지원서비스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및 취업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HRD 연구. 제9권 제2호. 27-50.
- 백경숙·김효숙(201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와 가족기능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3호. 205-223.
- 성미혜(2009).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 건강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73-80.
- 신경아(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30권 제4호. 153-187.
- 안윤정(2014). “대학생의 역할지향성과 양성평등의식, 일희망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0호. 167-193.
- 여성가족부(2016a). “2016년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http://www.mogef.go.kr>에서 2016.05.10. 인출.

- \_\_\_\_\_ (2016b). “2016년 청년여성경력개발 프로그램 전문모델”.  
<http://www.mogef.go.kr/>에서 2016.05.10. 인출.
- \_\_\_\_\_ (2016c). “정책안내”. <http://www.mogef.go.kr/>에서 2016.06.15.  
인출.
- 유계숙·손현겸(2015). “대학생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대인관계 욕구와 삶의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  
회지. 제20권 제2호. 75-100.
- 유보람(2016). 성 불평등 현실과 ‘알파걸’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지선·유계숙(2007).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  
성적, 성 허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4호. 1-16.
- 이명희(2012). 대학생의 일 가치관과 여가 가치관, 그리고 성역할 태도가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재(2015). 대학교 졸업자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 특성 분석. 고용패널브리  
프.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이영옥(2010). 정신건강증진 행위와 성역할정체감 및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2009).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성역할 태도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15권 제3호. 79-102.
- 임정 빈·정혜정(1998).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 천대윤(2013). 자살갈등관리전략: 자살인지행동치료와 행복증진전략. 서울:  
삼현.
- 최은영·곽현주(201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과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구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88호.  
429-456.
- 통계청(2014). 경력단절여성 통계 주요 내용 분석.
- \_\_\_\_\_ (2016). 직업별 혼인 건수.
- 한국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자살예방협회(2014). 자살예방백서.  
서울: 중앙자살예방센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08). “성인지력의개념은 무엇인가요?”.  
http://www.kigepe.or.kr에서 2016.05.09. 인출.
- 한만봉(2011). 자살심리론.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한인영·홍선희(2011). “여성의 성역할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6권 제4호. 477-498.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2), 358-372.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70-480.
- Baca-Garcia, E., Perez-Rodriguez, M. M., Mann, J. J., & Oquendo, M. A. (2008). Suicidal behavior in young women.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1(2), 317-331.
- Bromberger, J. T., & Matthews, K. A. (1996).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pessimism, trait anxiety, and life stress on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Psychology and Aging*, 11(2), 207-213.
- Colucci, E., & Martin, G. (2008). Religion and spirituality along the suicidal pat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2), 229-244.
- Durkheim, E. (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1897]. *Translated by JA Spaulding and G. Simpson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1).*
- Jobes, D. A. (2006). Managing suicidal risk: *A collaborative approach*. NY: Guilford Press.
- Joiner, T. 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2010). *Myths about suicid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amis, D. A., & Lester, D. (2012).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6(3), 337-349.

- Lott, B., & Maluso, D. (1993). The social learning of gender. In A. E. Beall & Beall & R. J. Sternberg(Eds.), *The psychology of gender*(pp. 99-123). NY: Guilford Press.
- McCabe, K., & Barnett, D. (2000). First comes work, then comes marriage: Future orientation among african american young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49(1), 63-70.
- Murphy, G. E. (1998). Why women are less likely than men to commit suicide. *Comprehensive Psychiatry*, 39(4), 165-175.
- Nademin, E., Jobes, D. A., Downing, V., & Mann, R. (2005). *Reasons for living among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between suicidal and non-suicidal samples*. Unpublished manuscrip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Washington, DC.
- O'Connor, R. C., Fraser, L., Whyte, M. C., MacHale, S., & Masterton, G. (2008). A comparison of specific positive future expectancies and global hopelessness as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a prospective study of repeat self-harm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0(3), 207-214.
- O'Connor, R. C., Smyth, R., & Williams, J. M. G. (2015). Intrapersonal positive future thinking predicts repeat suicide attempts in hospital-treated suicide attemp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3(1), 169-176.
- Robbins, R. N., & Bryan, A. (2004). Relationships between future orientation, impulsive sensation seeking, and risk behavior among adjudicated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4), 428-445.
- Ryan, R. M. (1993). Agency and organization: Intrinsic motivation, autonomy and the self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J. Jacobs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motivation*. 40, 1-56.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eginer, R. (1995). The hopes and fears of anticipated adulthood: Adolescent future orientation in cross-cultural context. *G. Trommsdorff (Hsg.), Kinderheit und Jugend im Kulturvergleich*, 225-247.
- Stellrecht, N. E., Gordon, K. H., Van Orden, K., Witte, T. K., Wingate, L. R., Cukrowicz, K. C., Butler, M., Schmidt, N. B., & Fitzpatrick, K. K., & Joiner, T. E. (2006). Clinical applica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attempted and completed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2), 211-222.
- Stephenson, H., Pena-Shaff, J., & Quirk, P. (2006).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 suicidal ideation: Gender differences. *College Student Journal*, 40(1), 109-117.
- Straiton, M. L., Roen, K., & Hjelmeland, H. (2012). Gender roles, suicidal ideation, and self-harming in young adul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6(1), 29-43.
- Van Orden, K. A., Cukrowicz, K. C., Witte, T. K., & Joiner, T. E. (2012).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Construct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197-215.
- Van Orden, K. A., Lynam, M. E., Hollar, D., & Joiner Jr, T. E. (2006). Perceived burdensomeness as an indicator of suicidal sympto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4), 457-467.
- Van Orden, K. A., Witte, T. K.,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Jr, T. E.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72-83.
- Van Orden, K. A., Witte, T. K., James, L. M., Castro, Y., Gordon, K. H., Braithwaite, S. R., Hollar, D. L., & Joiner, T. E. (2008).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varies across semesters: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varies across semesters: The mediating role of belongingnes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4), 427-435.

- Wallack, C. E.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A re-examination of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of University, US.
- World Economic Forum. (2015).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Retrieved from <http://reports.weforum.org>. on 20 November 2015.
- Zhang, J., Lester, D., Zhao, S., & Zhou, C. (2013). Suicidal ideation and its correlates: Testing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in Chinese studen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7(3), 236-241.

**Abstract**

**The Effects of Future Orientation on Suicide  
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among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Roles  
Attitudes**

Hyeon-Gyeom, Son · Gye-sook, Y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uture orientation on suicide 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among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roles attitudes. Data were collected from 342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12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s of female students' future orientation of their future 'work and career', and 'marriage and family' showed mostly high. Also, they showed substantially equal gender role attitudes with low levels of suicide-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Second, the levels of female students' suicide-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and thwarted belongingness were found to be higher among older students. This was also true when their family income was lower, their future orientation of work and career, and marriage and family weaker, and their gender role attitudes more traditional. As for the level of perceived burdensomeness, it was found to be higher as the female students' family income was lower, their future orientation of work and career, and marriage and family weaker, and the gender role attitudes more traditional.

Third, this study found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uture orientation and suicide 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Female students with low levels

of future orientation of marriage and family who had a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showed high levels of suicide-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and thwarted belonging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therapy programs for young women to prevent their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Keywords** : future orientation, gender role attitudes, suicide 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thwarted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